

파울타구 맞은 두산 장승현

등록 2023.06.22 20:24:21



[서울=뉴시스] 최진석 기자 = 22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3 KBO리그 SSG 랜더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. 1회초 1사 주자없는 상황 두산 포수 장승현이 SSG 에레디아의 파울타구를 맞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. 2023.06.22. myjs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